

[보도자료] 강남,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들 매료시킨 밀당 텐션! 이상화 취향 꿰뚫은 '사랑꾼 남편'의 정석 화제!

2026. 5. 20.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 강남 이미지

만능 엔터테이너 강남이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센스 넘치는 리액션으로 존재감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강남은 지난 17일(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에 출연해 소탈한 일상부터 아내 이상화와의 달콤 살벌 비하인드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공개했다. 이날 강남은 능청스러운 토크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것은 물론, 아내의 극과 극 입맛을 겨냥한 맞춤형 요리 주제를 직접 제안하며 대결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특히 강남은 노련한 완급 조절로 토크를 자연스럽게 이끌며 특유의 친근한 캐릭터로 MC들과 셰프들의 웃음을 연신 이끌어냈다.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아내 이상화의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 덕분에 지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따뜻한 사연도 전해 훈훈함

을 자아냈다.

강남은 예능감 뒤에 숨겨진 '찐 사랑꾼'의 면모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연애 시절부터 이어진 이상화의 철저한 내조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반대로 무릎과 발목 통증을 달고 사는 이상화를 위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고백해 셰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면에 감춰진 지극한 외조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셰프들을 쥐락펴락하는 강남의 밀당 리액션도 빛을 발했다. '이상화가 좋아할 요리'와 '이상화가 싫어할 요리'라는 조건을 내세워 대결 구도를 흥미진진하게 만든 강남은 대결 내내 셰프들을 긴장시키는 능청스러움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어진 결과 발표에서 강남은 '이상화가 좋아할 요리'로 권성준 셰프의 요리를 선택하며, 아내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다. 반면 '이상화가 싫어할 요리' 대결에서는 박은영 셰프를 선택한 뒤 "여기에 맥주까지 마셨다면 당분간 대화를 못할 것 같다"라는 재치 있는 평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편, 구독자 14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나미'를 통해 독보적인 친근함으로 사랑받고 있는 강남은 방송과 뉴미디어를 넘나들며 대체 불가능한 '예능 치트키'로 활발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